

매일 미사 전례 독서

2011년 2월

한국 천주교 주교회의

신심 미사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

제1독서 <그 왕권은 강대하고,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.>

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9,1-3,5-6

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,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.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, 수확할 때 기뻐하듯,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. 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젊어진 멍에와, 어깨에 멘 장대와,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,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.

⁵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,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.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,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, 용맹한 하느님, 영원한 아버지,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.

⁶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,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.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,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.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5(84),9,11-12,13-14(◎ 9ㄴ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. 당신 백성,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,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.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. ◎
-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,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,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 ◎
-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,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,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1,28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,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,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26-38

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,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“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”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

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³¹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,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,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,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”

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, “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자,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

“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.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

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”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일 연중 제4주간 화요일

제1독서 〈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12, 1-4

형제 여러분, ¹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,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,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. ²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.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,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건디어 내시어,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.

³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건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. ⁴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2(21), 26ㄴ-27, 28과 30ㄱㄴ, 30ㄷ-32(◎ 27ㄴ 참조)

◎ 주님 찾는 이들이 그분을 찬양하리라.

○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.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,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.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! ◎

○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,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,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,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. ◎

○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,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.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,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.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8, 1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그리스도,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,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소녀야, 일어나라!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 21-43

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,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.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, ²²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, ²³ “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.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,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.”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. ²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.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.

²⁵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. ²⁶ 그 여자는 숭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,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. ²⁷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,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. ²⁸ ‘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.’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. ²⁹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.

³⁰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, “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 ³¹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. “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, ‘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?’ 하고 물으십니까?” ³²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. ³³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,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. ³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. “딸아,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평안히 가거라.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.”

³⁵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, “따님이 죽었습니다.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였다. ³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,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. “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.” ³⁷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. ³⁸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.

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, ³⁹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, “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?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.” 하고 말씀하셨다. ⁴⁰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.

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,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. ⁴¹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

말씀하셨다. “탈리타 쿴!” 이는 번역하면 ‘소녀야, 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일어나라!’는 뜻이다. ⁴²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.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.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. ⁴³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,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일 수요일 주님 봉헌 축일 (봉헌 생활의 날)

제1독서 〈너희가 찾던 주님,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.〉

▮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3,1-4〈또는 히브 2,14-18〉

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

¹ 보라,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,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. 너희가 찾던 주님,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.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, 보라, 그가 온다.

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— ²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,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?

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,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. ³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,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,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,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.

⁴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,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4(23),7.8.9.10(◎ 10ㄴㄷ)

◎ 만군의 주님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

○ 성문들아, 머리를 들어라. 영원한 문들아, 일어서라.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. ◎

○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?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,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. ◎

- 성문들아, 머리를 들어라. 영원한 문들아, 일어서라.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.
- ◎ 만군의 주님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
-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? 만군의 주님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2,32

- ◎ 알렐루야.
-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며,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22-40〈또는 2,22-32〉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〈 〉 부분을 생략한다.

²²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,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. ²³ 주님의 율법에 “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.”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. ²⁴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“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”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.

²⁵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.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,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,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. ²⁶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.

²⁷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.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, ²⁸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.

²⁹ “주님,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,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. ³⁰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. ³¹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, ³²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,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.”

〈³³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. ³⁴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,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, 또 반대를 받는

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. ³⁵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,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.”

³⁶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,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.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,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, ³⁷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.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,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. ³⁸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,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.

³⁹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,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.

⁴⁰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,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.〉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3일 목요일 설

제1독서 〈나의 이름을 부르면,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.〉

▮ 민수기의 말씀입니다.

6,22-27

²²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²³ “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. ‘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.

²⁴ ‘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,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. ²⁵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,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. ²⁶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,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.’”

²⁷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,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0(89),2와 4.5-6.12-13.14와 16(◎ 17ㄱ)

◎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

○ 산들이 솟기 전에,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,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.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. ◎

- 당신이 그들을 쫓아 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.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.
- ◎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
-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 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◎
-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.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,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. ◎

제2독서 <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.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?>

▮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.

4,13-15

¹³ 자, 이제, “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.” 하고 말하는 여러분! ¹⁴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.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. ¹⁵ 도리어 여러분은 “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.” 하고 말해야 합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시편 145(144),2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, 영영 세세 주님의 이름 찬양하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.>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2,35-40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³⁵ “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. ³⁶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. ³⁷ 행복하여라,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!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,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. ³⁸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,

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, 그 종들은 행복하다!

³⁹ 이것을 명심하여라.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,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. ⁴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4일 연중 제4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예수 그리스도는 어제, 오늘도,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13,1-8

형제 여러분, ¹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. ²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.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. ³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 주고,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.

⁴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,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.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.

⁵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,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. 그분께서 “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, 버리지도 않겠다.”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⁶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“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,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?”

⁷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.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,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.

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, 오늘도,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7(26), 1.3.5.8과 9ㄴㄷㄹ(◎ 1ㄱ)

◎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이시네.

○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.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?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.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? ◎

-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,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.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,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.
- ◎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이시네.
- 환난의 날, 그분은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,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, 바위 위로 나를 올려 세우시리라. ◎
-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.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,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.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. 저를 내쫓지 마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8,15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,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!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6,14-29

그때에 ¹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,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. 사람들은 “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.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.” 하고 말하였다. ¹⁵ 그러나 어떤 이들은 “그는 엘리야다.” 하는가 하면, 또 어떤 이들은 “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.” 하였다. ¹⁶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, “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.” 하고 말하였다.

¹⁷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.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,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. ¹⁸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, “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”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. ¹⁹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,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. ²⁰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,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.

²¹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.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. ²²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

들어가 춤을 추어,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.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, “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. 너에게 주겠다.”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, ²³ “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,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.”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. ²⁴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“무엇을 청할까요?” 하자, 그 여자는 “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.” 하고 일렀다.

²⁵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, “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.” 하고 청하였다. ²⁶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,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. ²⁷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,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.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, ²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,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. ²⁹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,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5일 토요일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

제1독서 <위대한 목자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>

▣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3, 15-17, 20-21

형제 여러분, ¹⁵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.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. ¹⁶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.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.

¹⁷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. 그들은 하느님께 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.

²⁰ 영원한 계약의 피로,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²¹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,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.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

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. 아멘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3(22), 1-3 7.3ㄴ-4.5.6(◎ 1)

- ◎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-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. ◎
-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,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.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,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 ◎
- 원수들 보는 앞에서,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-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0, 27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 나는 그들을 알고, 그들은 나를 따른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6, 30-34

그때에 ³⁰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,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. ³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.” 하고 말씀하셨다.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.

³²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. ³³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,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.

³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,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6일 연중 제5주일

제1독서 〈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.〉

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58, 7-10

⁷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,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,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,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? ⁸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,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.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,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. ⁹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, 네가 부르짖으면 “나 여기 있다.”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. 네가 네 가운데에서 명예와 샷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, ¹⁰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,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 준다면,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,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2(111), 4-5, 6-7, 8ㄱ과 9(◎ 4ㄱ)

- ◎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.
-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.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. 잘되리라, 후하게 꾸어 주고,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! ◎
-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,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.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,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. ◎
-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,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,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. ◎

제2독서 〈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.〉

□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2, 1-5

¹ 형제 여러분,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,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시다. ²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,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.

³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,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. ⁴ 나의

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,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⁵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요한 8, 12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 13-16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¹³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? 아무 쓸모가 없으니,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.

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. ¹⁵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.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.

¹⁶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,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,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7일

연중 제5주간 월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.〉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1, 1-19

¹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. ²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,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.

³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빛이 생겨라.” 하시자 빛이 생겼다. ⁴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.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, ⁵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,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. 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,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.” ⁷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,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, 그대로 되었다. ⁸ 하느님께서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. 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, 물이 드러나라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 ¹⁰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,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.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. ¹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.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 ¹²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.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.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. ¹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. ¹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, 낮과 밤을 가르고, 표징과 절기,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. ¹⁵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 ¹⁶ 하느님께서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,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,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.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. ¹⁷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, ¹⁸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.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. ¹⁹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4(103), 1-2, 5-6, 10과 12, 24와 35ㄷ(◎ 31ㄴ)

- ◎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.
-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주 하느님,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.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,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. ◎
-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,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라.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,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. ◎
-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,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,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,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. ◎

- 주님,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!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,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- ◎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.

복음 환호송

마태 4, 23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6, 53-56

그때에 ⁵³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.

⁵⁴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, ⁵⁵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,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. ⁵⁶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,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.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8일

연중 제5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.>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1, 20-2, 4ㄱ

²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,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.” ²¹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,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.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. ²²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. “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. 새들도

땅 위에서 번성하여라.”²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.

²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,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²⁵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, 짐짐승을 제 종류대로,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.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.

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.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.”²⁷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.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,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.²⁸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.

“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,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.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.”

²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.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.”³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.” 하시자, 그대로 되었다.³¹ 하느님께서 보시니,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날이 지났다.

^{2,1}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.² 하느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.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이렛날에 쉬셨다.³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.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.

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,4-5,6-7,8-9(◎ 2ㄱ)

◎ 주님, 저희 주님, 온 땅에 당신 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!

○ 우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,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.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?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? ◎

○ 주님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,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.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,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. ◎

○ 주님은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, 들짐승하며,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,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.

◎ 주님, 저희 주님, 온 땅에 당신 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!

복음 환호송

시편 119(118), 36.29ㄴ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 하느님, 탐욕이 아니라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.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 1-13

그때에 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, ²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,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. ³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,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, ⁴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.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, 잔이나 단지나 돛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. ⁵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. “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,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?”

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.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. 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,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. ⁷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, 나를 헛되이 섬긴다.’ 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.”

⁹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. ¹⁰ 모세는 ‘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.’ 그리고 ‘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’고 말하였다. ¹¹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‘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,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.’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. ¹²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. ¹³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. 너희는 이런

것들을 많이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9일 연중 제5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, 그곳을 돌보게 하셨다.>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2,4ㄴ-9.15-17

⁴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, ⁵ 땅에는 아직 들의 덩불이 하나도 없고,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.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,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.

⁶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. ⁷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,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,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.

⁸ 주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,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. ⁹ 주 하느님께서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,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,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.

¹⁵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,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. ¹⁶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. “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. ¹⁷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. 그 열매를 따 먹는 날,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4(103), 1-2ㄱ, 27-28, 29ㄴ-30(◎ 1ㄱ)

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주 하느님,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.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,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. ◎

○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라나이다. 제때에 먹이를 달라 청하나이다. 당신이 주시면 그들은 모아들이고, 당신 손을 펼치시면 복이 넘치나이다. ◎

○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,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.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,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.

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복음 환호송

요한 17,17ㄴ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,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,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.>

✦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14-23

그때에 ¹⁴ 예수님께서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. ¹⁵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.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.” ⁽¹⁶⁾

¹⁷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,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. ¹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?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? ¹⁹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뒤통으로 나가기 때문이다.”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.

²⁰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. “사람에게서 나오는 것,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. ²¹ 안에서,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, 불륜, 도둑질, 살인, ²² 간음, 탐욕, 악의, 시기, 방탕, 시기, 중상, 교만, 어리석음이 나온다. ²³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0일 목요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

제1독서 <하느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셔서,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.>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2,18-25

¹⁸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,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.” ¹⁹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,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.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. ²⁰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.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.

²¹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은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,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. ²²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,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, ²³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.

“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,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!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로 불리리라.”

²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, 둘이 한 몸이 된다.

²⁵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28(127), 1-2. 3. 4-5(◎ 1ㄱ 참조)

- 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!
-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! 너는 네 손으로 벌어먹으리니, 행복하여라, 너는 복을 받으리라. ◎
-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,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. ◎
- 보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.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야고 1, 21ㄴㄷ

- ◎ 알렐루야.
-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.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>

✱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7, 24-30

그때에 ²⁴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.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,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.

²⁵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,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. ²⁶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,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.

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, “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.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.” 하고 말씀하셨다.

²⁸ 그러자 그 여자가, “주님,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” 하고 응답하였다.

²⁹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그렇게 말하니, 가 보아라.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.” ³⁰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,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1일

연중 제5주간 금요일

(세계 병자의 날)

제1독서 <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.>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3, 1-8

¹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.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. “하느님께서 ‘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.’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?”

²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. “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. ³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, ‘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, 만지지도 마라.’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”

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. “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. ⁵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,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.”

⁶ 여자가 쳐다보니,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. 그뿐만 아니라,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.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,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, 그도 그것을 먹었다.⁷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,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.

⁸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.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2(31),1-2.5.6.7(◎ 1ㄱ)

- ◎ 행복하여라, 죄를 용서받은 이!
- 행복하여라,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! 행복하여라,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,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! ◎
-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,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, “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.” 할 때,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. ◎
-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. 큰물이 닥친다 하여도,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. ◎
- 당신은 저의 피신처.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,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사도 16,14ㄴ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,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,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,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7,31-37

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,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.

³²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,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 ³³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,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. ³⁴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, 그에게 “에파타!”,

곧 “열려라!” 하고 말씀하셨다.³⁵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,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.

³⁶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.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.

³⁷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. “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.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,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2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예덴 동산에서 내치시어, 흠을 일구게 하셨다.〉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3,9-24

⁹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, “너 어디 있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¹⁰ 그가 대답하였다. “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,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.”

¹¹ 그분께서 “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?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¹² 사람이 대답하였다. “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, 제가 먹었습니다.”

¹³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“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여자가 대답하였다.

“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.”

¹⁴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,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,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. ¹⁵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,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,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,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.”

¹⁶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.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.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,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.”

¹⁷ 그리고 사람에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, 내가

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,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.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. ¹⁸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,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. ¹⁹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,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. 너는 먼지이니, 먼지로 돌아가리라.”

²⁰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.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.

²¹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. ²²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자,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,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.”

²³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, 그가 생겨 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. ²⁴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, 에덴 동산 동쪽에 커튼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,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0(89), 2.3-4.5-6.12-13(◎ 1)

- ◎ 주님,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.
- 산들이 솟기 전에,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,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. ◎
-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. “사람들아, 돌아가라.”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. ◎
-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.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. ◎
-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 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 4ㄷ

- ◎ 알렐루야.
-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,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〉

✱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8,1-10

¹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, 먹을 것이 없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. ² “저 군중이 가엾구나.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. ³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.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.”

⁴ 그러자 제자들이 “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대답하였다.

⁵ 예수님께서 “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그들이 “일곱 개 있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⁶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.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,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,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. ⁷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,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.

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.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. ⁹ 사람들은 사천 명가량이었다.

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, ¹⁰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3일 연중 제6주일

제1독서 〈주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.〉

□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15, 15-20

¹⁵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,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. ¹⁶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,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. ¹⁷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,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. ¹⁸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,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. ¹⁹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,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. ²⁰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,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9(118), 1-2. 4-5. 17-18. 33-34(◎ 1ㄴ)

- ◎ 행복하여라,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!
- 행복하여라,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,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! 행복하여라,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,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! ◎
-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,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.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. ◎
-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.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. 제 눈을 열어 주소서.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. ◎
- 주님,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.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. 저를 깨우치소서.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,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. ◎

제2독서 〈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, 미리 지혜를 정하셨습니다.〉

□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2, 6-10

형제 여러분, ⁶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.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,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. ⁷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.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,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

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. ⁸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.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. ⁹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. “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,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,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,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.” ¹⁰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.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,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2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옛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르셨으나,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5,17-37<또는 5,20-22ㄴ,27-28,33-34ㄴ,37>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< > 부분을 생략한다.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〈¹⁷ “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.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.

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,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,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

¹⁹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,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.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,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.〉

²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,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

²¹ ‘살인해서는 안 된다.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.’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²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. 〈그리고 자기

형제에게 ‘바보!’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, ‘멍청이!’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.

²³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,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, ²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.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.

²⁵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.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,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,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. ²⁶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.》

²⁷ ‘간음해서는 안 된다.’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²⁸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.

《²⁹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.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. ³⁰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.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.

³¹ ‘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.’ 하신 말씀이 있다. ³²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.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.》

³³ ‘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.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.’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. ³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아예 맹세하지 마라. 《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. ³⁵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.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. ³⁶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.》

³⁷ 너희는 말할 때에 ‘예.’ 할 것은 ‘예.’ 하고, ‘아니요.’ 할 것은 ‘아니요.’라고만 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4일 월요일
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

제1독서 〈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.〉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4,1-15,25

¹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하니,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. “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.” ²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,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,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.

³ 세월이 흐른 뒤에,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, ⁴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만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.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, ⁵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.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.

⁶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,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? ⁷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?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,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,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?”

⁸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“들에 나가자.” 하고 말하였다. 그들이 들에 있을 때,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.

⁹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. “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?” 그가 대답하였다. “모릅니다.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?”

¹⁰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.

“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? 들어 보아라.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. ¹¹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,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. ¹² 네가 땅을 부쳐도,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.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.”

¹³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. “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큼니다. ¹⁴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,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,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,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.”

¹⁵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아니다.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곱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다.”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

주셔서,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.

²⁵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니,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, “카인이 아벨을 죽여 버려,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.”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50(49),1과 8.16ㄴ-17.20-21(◎ 14ㄱ)

◎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.

○ 하느님,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.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. “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.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.” ◎

○ “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,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?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, 내 말을 뒷전으로 뺄까치지 않느냐?” ◎

○ “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, 네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. 네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,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. 나는 너를 벌하리라. 너의 행실 네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.”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6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?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8,11-13

그때에 ¹¹ 바리사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.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. ¹²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. “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.”

¹³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,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5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.>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6,5-8; 7,1-5.10

⁵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,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, ⁶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. ⁷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. 사람뿐 아니라,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.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!”

⁸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.

^{7,1}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. 내가 보니,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. ²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,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. ³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,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. ⁴ 이제 이레가 지나면, 내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,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.”

⁵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. ¹⁰ 이레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9(28), 1ㄱ과 2,3ㄱ과 4,3ㄴ과 9ㄴ-10(◎ 11ㄴ)

◎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

○ 하느님의 아들들아, 주님께 드려라.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.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. ◎

○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물고,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.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,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. ◎

○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.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. “영광이여!”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.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,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,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8,14-21

그때에 ¹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,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. ¹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너희는 주의하여라.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.” 하고 분부하셨다.

¹⁶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.

¹⁷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?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?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? ¹⁸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,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?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? ¹⁹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, 빵 조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?”

그들이 “열둘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²⁰ “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,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?”

그들이 “일곱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?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6일

연중 제6주간 수요일

제1독서 <노아가 내다보니,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.>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8,6-13.20-22

⁶ 사십 일이 지난 뒤에,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⁷ 까마귀를 내보냈다.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.

⁸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. ⁹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.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.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

들여놓았다. ¹⁰ 그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. ¹¹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,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.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. ¹²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.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.

¹³ 노아가 육백한 살이 되던 해,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말랐다.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,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.

²⁰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,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. ²¹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. ‘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,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.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.’ ²² 땅이 있는 한, 씨뿌리기와 거두기, 추위와 더위, 여름과 겨울,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.’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6(115), 12-13, 14-15, 18-19ㄴ (◎ 17ㄱ 참조)

- ◎ 주님,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.
-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,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? 구원의 잔 받들고,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. ◎
-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당신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 ◎
-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. 주님의 집 앞뜰에서, 예루살렘아, 네 한가운데에서. ◎

복음 환호송

에페 1, 17-18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,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,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눈먼 이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.>

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8, 22-26

그때에 ²²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.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

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,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 ²³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,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, “무엇이 보이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 ²⁴ 그는 앞을 쳐다보며, “사람들이 보입니다.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²⁵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.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.

²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. “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7일 연중 제6주간 목요일

제1독서 〈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,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.〉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9,1-13

¹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.

“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. ² 땅의 모든 짐승과, 하늘의 모든 새와,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,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.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. ³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.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,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.

⁴ 다만 생명, 곧 피가 들어 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. ⁵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.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.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. ⁶ 사람의 피를 흘린 자, 그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.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.

⁷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.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.”

⁸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. ⁹ “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. ¹⁰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

생물, 곧 방주에서 나와,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. ¹¹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,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,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”

¹²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. “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, 나와 너희,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. ¹³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,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2(101), 16-18, 19-21, 29와 22-23(◎ 20ㄴ)

- ◎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.
-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,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.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,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. 햇빛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,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. ◎
-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,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.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,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,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,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. ◎
- “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,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.”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,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. 그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6, 63ㄷ, 68ㄷ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,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.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.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8, 27-33

그때에 ²⁷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

향하여 길을 떠나셨다.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, “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²⁸ 제자들이 대답하였다. “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,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.”

²⁹ 예수님께서 다시, “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베드로가 “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³⁰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,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.

³¹ 예수님께서서는 그 뒤에,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,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. ³²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.

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. ³³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,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셨다. “사탄아, 내게서 물러가라.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8일 연중 제6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놓자.〉

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11,1-9

¹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,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. ²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. ³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. “자,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.”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,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.

⁴ 그들은 또 말하였다. “자, 성읍을 세우고,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.”

⁵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,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⁶ 말씀하셨다. “보라, 저들은 한 겨레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.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

일의 시작일 뿐,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. ⁷ 자,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,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.”

⁸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.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. ⁹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.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,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3(32), 10-11, 12-13, 14-15(◎ 12ㄴ)

- ◎ 행복하여라,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
-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, 백성들의 계획을 흩으신다.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,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. ◎
- 행복하여라,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,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,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. ◎
-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,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.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빛으시고,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 15ㄴㄷ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.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8, 34—9, 1

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³⁵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,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

³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? ³⁷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?

³⁸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,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.”

^{9,1}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19일 연중 제6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믿음으로써,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깨닫습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1,1-7

형제 여러분,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,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.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

³ 믿음으로써,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,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.

⁴ 믿음으로써,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.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, 하느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. 그는 죽었지만,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.

⁵ 믿음으로써,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. “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,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.” 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“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.”고 인정을 받았습니다. ⁶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.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,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.

⁷ 믿음으로써,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,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셨습니다.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,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5(144), 2-3.4-5.10-11(◎ 1번 참조)

- ◎ 주님,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.
-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,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.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,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. ◎
-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, 당신 위업을 널리 전하리이다. 당신의 위업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,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. ◎
-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르 9,7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.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9,2-13

그때에 ²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.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. ³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든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. ⁴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.

⁵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, 하나는 모세께,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.” ⁶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.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.

⁷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, “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” 하는 소리가 났다. ⁸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,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.

⁹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,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,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. ¹⁰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.

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. ¹¹ 제자들이 예수님께 “율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¹²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.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? ¹³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,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,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0일 연중 제7주일

제1독서 〈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〉

▮ 레위기의 말씀입니다.

19, 1-2, 17-18

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² “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.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¹⁷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.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.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. ¹⁸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.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 나는 주님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, 3-4, 8과 10, 12-13(◎ 8ㄱ)

◎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
○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◎

○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. ◎

○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, 우리들의 허물을 멀리 치우시네.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,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. ◎

제2독서 〈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.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,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3, 16-23

형제 여러분, ¹⁶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,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? ¹⁷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,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.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. ¹⁸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,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

합니다. ¹⁹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.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“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.” ²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“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.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.”

²¹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.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. ²²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,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,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. ²³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,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나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1요한 2,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,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원수를 사랑하여라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38-48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³⁸ “‘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.’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³⁹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.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,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. ⁴⁰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. ⁴¹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,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. ⁴² 달라는 자에게 주고,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.”

⁴³ “‘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.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.’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

⁴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.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. ⁴⁵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.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,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.

⁴⁶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?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? ⁴⁷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

인사한다면,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?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?

⁴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,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1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

제1독서 〈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.〉

□ 집회서의 시작입니다.

1,1-10

¹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,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.

²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? ³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, 심연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?

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,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. ⁵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,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.

⁶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,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? ⁷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,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?

⁸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,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.

⁹ 주님께서서는 지혜를 만드시고,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,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, ¹⁰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부으셨으며,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.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,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 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,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3(92),1ㄱ-1ㄷ-2.5(◎ 1ㄱ)

◎ 주님은 임금님, 위엄을 입으셨네.

○ 주님은 임금님, 위엄을 입으셨네.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. ◎

-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. 예로부터 당신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, 영원으로부터 당신은 계시나이다. ◎
-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,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. 주님,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2티모 1,10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,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주님, 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9,14-29

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¹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,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. ¹⁵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.

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“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¹⁷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. “스승님, 병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. ¹⁸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.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, 이를 갈며, 몸이 뻗뻗해집니다.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,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.”

¹⁹ 그러자 예수님께서, “아, 믿음이 없는 세대야!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?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?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.”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 ²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.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.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.

²¹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, “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그가 대답하였다.

“어릴 적부터입니다. ²²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,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.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없이 여겨 도와주십시오.”

²³ 예수님께서 그에게, “‘하실 수 있으면’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이에게는

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 하고 말씀하시자, ²⁴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, “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.” 하고 외쳤다.

²⁵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,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. “병어리, 귀머거리 영아,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.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.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.” ²⁶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,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“아이가 죽었구나.” 하였다. ²⁷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.

²⁸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, “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 ²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. “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2일 화요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

제1독서 <같은 원로로서,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으로서>

▣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.

5,1-4

사랑하는 여러분, ¹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,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. ²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. 그들을 돌보되, 억지로 하지 말고,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.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, 열성으로 하십시오. ³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,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.

⁴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,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3(22),1-3 7.3ㄴ-4.5.6(◎ 1)

◎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
○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. ◎

-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,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.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,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 ◎
-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-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6,18

◎ 알렐루야.

- 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,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는 베드로이다.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13-19

그때에 ¹³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, “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¹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. “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,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.”

¹⁵ 예수님께서 “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¹⁶ 시몬 베드로가 “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시몬 바르요나야, 너는 행복하다! 살과 피가 아니라,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. ¹⁸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. 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,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. ¹⁹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3일 수요일
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

제1독서 〈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.〉

☐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4, 11-19

¹¹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 주고,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 준다. ¹²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,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.

¹³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,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. ¹⁴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,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. ¹⁵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,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.

¹⁶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,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. ¹⁷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,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물고 오리라.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,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.

¹⁸ 그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, 자신의 비밀을 보여 주리라. ¹⁹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, 그를 파멸의 손아귀에 넘기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9(118), 165. 168. 171. 172. 174. 175(◎ 165ㄱ 참조)

◎ 주님,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에게 평화가 넘치나이다.

○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에게 평화 넘치고, 그들 앞에는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나이다. ◎

○ 제가 가는 모든 길 당신 앞에 있기에, 당신의 규정과 법을 저는 지키나이다. ◎

○ 저에게 당신 법령을 가르치셨기에,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 내나이다. ◎

○ 당신 계명이 모두 의롭기에, 제 혀가 당신 말씀을 노래하나이다. ◎

○ 주님, 당신 구원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 당신 가르침이 저의 즐거움이옵니다. ◎

○ 이 목숨 살려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. 당신 법규로 저를 도와주소서. ◎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.>

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9,38-40

그때에 ³⁸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,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.”

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. “막지 마라.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,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⁴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4일 연중 제7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마라.>

▮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5,1-8

¹ 재산을 믿지 말고, “넉넉하다.”고 말하지 마라.

² 너 자신과 네 힘을 붙좃지 말고,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. ³ “누가 나를 억누르리오?” 하고 말하지 마라. 주님께서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.

⁴ “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?” 하지 마라.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. ⁵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.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.

⁶ “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,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.”고 말하지 마라. 정녕 자비도,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,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.

⁷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,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. 정녕 주님의

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,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.

⁸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.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, 1-2, 3, 4와 6(◎ 40(39), 5-7)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!

○ 행복하여라!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,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,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,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. ◎

○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, 제때에 열매 맺고, 잎이 아니 시들어,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. ◎

○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,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.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,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1테살 2, 1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, 사실 그대로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,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9, 41-50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⁴¹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,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.

⁴²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,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.

⁴³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.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,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,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 ⁽⁴⁴⁾

⁴⁵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.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,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 ⁽⁴⁶⁾

⁴⁷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.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,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

⁴⁸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, 불도 꺼지지 않는다. ⁴⁹ 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.

⁵⁰ 소금은 좋은 것이다.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?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5일 연중 제7주간 금요일

제1독서 〈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.〉

□□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6,5-17

⁵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,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. ⁶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, 조언자는 천 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.

⁷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 보고 얻되,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. ⁸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,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.

⁹ 원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, 그는 너의 수치스러운 말다툼을 폭로하리라. ¹⁰ 식탁의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,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.

¹¹ 그는 네가 잘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, 네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대리라. ¹² 그러나 네가 비천하게 되면, 그는 너를 배반하고 네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.

¹³ 원수들을 멀리하고, 친구들도 조심하여라.

¹⁴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,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. ¹⁵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,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.

¹⁶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,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. ¹⁷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 나가니,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9(118), 12. 16. 18. 27. 34. 35(◎ 35ㄱ 참조)

- ◎ 주님,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.
- 주님, 당신은 찬미받으소서. 저에게 당신 규범 가르치소서. ◎
- 당신 규범을 기꺼이 지키며,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리이다. ◎
- 제 눈을 열어 주소서.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. ◎
-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. 당신의 기적을 목상하오리다. ◎
- 저를 깨우치소서.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,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. ◎
-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.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7, 17ㄴㄱ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,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,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0, 1-12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.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.

² 그런데 바리사이드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, “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?” 하고 되물으시니, ⁴ 그들이 “‘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’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“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. ⁶ 창조 때부터 ‘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.’ ⁷ ‘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, 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.’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. ⁹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.”

¹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,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,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.

- ¹²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6일 연중 제7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주님께서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만드셨다.〉

□□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17, 1-15

¹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,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. ²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,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.

³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,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. ⁴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,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.

⁵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 덧붙여 그분께서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,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.

⁶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,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. ⁷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,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.

⁸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시어,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,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. ⁹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, ¹⁰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.

¹¹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,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, 지금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.

¹²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,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.

¹³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,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.

¹⁴ 그분께서는 “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.”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, 그들

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.

¹⁵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, 그분의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3(102), 13-14, 15-16, 17-18ㄱ(◎ 17 참조)

◎ 주님의 자애는 영원히,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.

○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,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.
우리의 됴됨이를 익히 아시고,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. ◎

○ 인생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서 들꽃처럼 그렇게 피어나지만, 바람 한 번 스쳐도 이내 사라져, 그 있던 자리조차 알 길이 없네. ◎

○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,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,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 이르리라,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 2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 13-16

그때에 ¹³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.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.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

“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.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. ¹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.”

¹⁶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7일 연중 제8주일

제1독서 〈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9, 14-15

¹⁴ 시온은 “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.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.” 하고 말하였지. ¹⁵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?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?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,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2(61).2-3.6-7.8-9ㄴ(◎ 6ㄴ)

◎ 내 영혼아, 하느님만을 고요히 기다려라.

○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, 내 영혼 그분만을 고요히 기다리네. 그분만이 내 바위, 내 구원, 내 성채.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. ◎

○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, 내 영혼아, 그분만을 고요히 기다려라. 그분만이 내 바위, 내 구원, 내 성채.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. ◎

○ 내 구원,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, 내 든든한 바위,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. 백성아,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.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. ◎

제2독서 〈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4, 1-5

형제 여러분, ¹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,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²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,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.

³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,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,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. 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.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.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.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.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

것을 밝히시고,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. 그때에 저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히브 4,12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,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내일을 걱정하지 마라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6,24-34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²⁴ “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.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,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.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.

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.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,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? ²⁶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.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,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.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.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?

²⁷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?

²⁸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?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.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, 길쌈도 하지 않는다. ²⁹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. ³⁰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,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?

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! ³¹ 그러므로 너희는 ‘무엇을 먹을까?’, ‘무엇을 마실까?’, ‘무엇을 차려입을까?’ 하며 걱정하지 마라. ³²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.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. ³³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

찾아라.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.

³⁴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.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.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2월 28일 연중 제8주간 월요일

제1독서 〈주님께 돌아와 하느님의 심판을 깨달아라.〉

□□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17, 24-29

²⁴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,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.

²⁵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.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. ²⁶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.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.

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.

²⁷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?

²⁸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, 건강하게 살아 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.

²⁹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,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!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2(31), 1-2. 5. 6. 7 (◎ 11ㄱ)

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

○ 행복하여라,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! 행복하여라,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,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! ◎

○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,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, “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.” 할 때,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. ◎

-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. 큰물이 닥친다 하여도,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.
- 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
- 당신은 저의 피신처.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,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2코린 8,9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.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가진 것을 다 팔고, 나를 따라라.〉

✦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0,17-27

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, “선하신 스승님,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?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. ¹⁹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? ‘살인해서는 안 된다. 간음해서는 안 된다.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.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. 횡령해서는 안 된다.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.’”

²⁰ 그가 예수님께 “스승님,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²¹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. “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.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.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.” ²²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.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

²³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!” ²⁴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. “얘들아,

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!²⁵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.”

²⁶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, “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?” 하고 서로 말하였다.

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. “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,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.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학생 졸업 미사

제1독서 〈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.〉

▮ 잠언의 말씀입니다.

1,2-7

²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,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, ³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.

⁴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,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, ⁵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,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. ⁶ 그러면 잠언과 비유,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.

⁷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.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9(18), 8.9.10.12-13ㄱ(◎ 요한 6,68ㄷ)

◎ 주님,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.

○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,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. ◎

○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,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. ◎

○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,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. ◎

○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,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.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? ◎

제2독서 〈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

4,17-24

형제 여러분, ¹⁷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.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.

¹⁸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,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, 하느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.

¹⁹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 냅니다.

²⁰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.

²¹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,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. ²² 곧,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, ²³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, ²⁴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5,13ㄱ.14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, 빛이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1-2.13-16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.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,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.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.

¹³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? 아무 쓸모가 없으니,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.

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. ¹⁵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.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.

¹⁶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,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,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